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

12억달러 투입 1500만개 생산 ... 2010년 말 착공 위해 건설부지 물색

한국타이어(대표 서승화)가 인도네시아에 12억달러를 투입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일간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인도네시아에 12억달러를 투입해 타이어 공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3개월 동안 인도네시아를 4차례 방문해 자카르타 외곽에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어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2010년 말 15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타이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한국타이어 대표단과 면담한 투자조정청(BKPM)의 기따 위르야완 청장은 “한국타이어가 투자지로 베트남 등 여러 아시아 국가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타이어 생산능력은 5900만개, 생산량은 4300만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0>